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국내 여성학 분야 연구 전선 분석*

Analyzing the Research Fronts of Women's Studies in Korea Using 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김조아 (Jo-Ah Kim)**

이재윤 (Jae Yun Lee)***

초 록

학제적 분야의 연구 전선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은 해당 문헌을 인용한 문헌의 표제어를 단서로 사용하여 문헌 간의 주제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적으로 국내 여성학 연구를 대상으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전선과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해보았다. 분석 대상은 KCI의 2015년 기준 여성학분야 인용빈도 10회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문헌 집합이다. 여성학 분야에 문헌동시인용 기법을 적용한 결과 인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2개 대분야 및 6개 소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학제적 연구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 new technique for revealing the research fronts of a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has been developed. 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CIMP) deter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papers with the title words of the citing documents. We adapted this new technique to analyze the research fronts and hot topics in women's studies of Korea. By Korean Citation Index (KCI) data in 2015, we selected 148 papers cited more than 9 times as the core documents of women's stud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was performed with the 148 core documents and those citing papers.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was hindered by citation data sparsity, while CIMP method successfully revealed the structure of research fronts of Korean women's studies including 2 divisions and 6 subdivisions. The CIMP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has good potential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front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domains.

키워드: 연구영역분석, 연구동향, 연구전선, 프로파일링,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여성학, 학제성
domain analysis, research trends, research fronts, profiling, 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women's studies, interdisciplinarity

*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은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 동계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 있음.

**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0322like@naver.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5월 31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6월 9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6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3(2), 201-225,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2.201]

1. 서론

학문으로의 여성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 여성학은 내부적으로는 미완의/불균등한 제도화라는 과제를 안고 외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급변하는 고등교육정책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 방식을 모색해 왔다. 여성학계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나영, 2011). 여성학의 입지는 단일 학문이면서도 연구 주체의 다양성, 외부 영향 요인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복잡한 학제성을 가진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문헌동시인용 분석 기법(Small, 1973)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헌동시인용 분석이 특정 학문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대표하는 연구 전선 파악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 동향 분석이나 지적 구조 분석 연구에서 문헌동시인용 분석이 활용된 사례는 드물다(이재윤, 2015). 문헌동시인용은 한정된 시기나 제한된 기준으로 학문적 연계성을 분리 시킴으로써 분석에 인용빈도가 적은 문헌쌍은 제외되어 소수의 논문만이 연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교적 발전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제한점이 있다(김영진, 1986). 과거에 국내 문헌에 대한 동시인용분석이 적었던 이유로는 국내의 연구문헌 수 자체가 해외에 비해서 매우 적은 규모이고, 그마저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인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연구 문헌의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누적된 연구문헌의 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국내 연구논문의 인용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용데이터에 대한 리스트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용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서비스를 구축하여 2004년 이후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현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가장 미시적인 분석단위인 문헌 인용을 이용한 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계량적 지적 구조 분석 기법으로 인용문헌의 표제어를 추출하여 동시인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학문분야의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시한다. 사전 시험적인 분석에서 문헌동시인용 기법으로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국내 여성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여성학 분야의 문헌 간 관계를 각각 파악하여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국내 여성학 분야의 연구전선을 형성한 핵심 문헌과 주제를 파악하고 타 분야에서의 인용을 통한 여성학 분야의 지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여성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국내에서 여성학 전체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인용분석으로 파악해본 연구로는 20년 전에

수행된 이명옥(1996)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저자동시인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1985년에서 1994년까지 10년 동안 5종의 여성전문지를 대상으로 여성연구분야의 학문적 특성화 시대 변화에 따른 학문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85-94년간의 연구동향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1980년대에는 가족, 여성교육, 여성노동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여성과 성, 여성과 법, 가사노동, 가정폭력 등의 주제가 새로운 연구분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가족과 여성복지 분야였으며, 여성교육과 여성사 분야는 1980년대에는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연구경향이 소멸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자동시인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여성연구분야의 학문적 특성 및 학문구조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전문가가 전문주제의 전문지식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이후에 여성학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로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여성학분야의 지식생산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주현(2000)의 연구는 『한국여성학』의 1985년부터 1998년까지 간행된 총 17권 9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는 여성학의 “간학문성”이 사회과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 영역은 크게 문화, 노동, 성, 정책, 이론, 기타(여성사, 여성운동사, 교육, 여성학교육방법, 지역여성연구, 종교) 6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분과 소속

연구자들이 주요 지식생산자이며 특히 '90년대 들어 문화, 이론, 성 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로는 여성학 제도화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본 후 학위과정의 여성학/젠더 관련학과, 여성학/젠더/여성 관련 교과목, 교양여성학의 현황을 알아보고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자 하는 이나영(2011)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배은경(2016)은 1946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기구의 편제와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지적구조 분석 기법

최근 국내에서 저자 동시인용 이외에 특정 학문분야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용 데이터를 사용하는 저자서지결합분석(민형진, 안준모, 2015; 박지연, 정동열, 2013; 유지영, 우수한, 2015; 이재운, 2008)과 인용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동시출현분석(강범일, 이재운, 2014; 김관준, 2015; 송민선, 고영만, 2015; 이수상, 2014; 허고은, 송민, 2013; Kim, 2014; Seo & Yu, 2013) 기법이 대표적이다.

단어동시출현과 같이 인용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지적구조 분석 기법으로는 토픽모델링과 프로파일링도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박자현과 송민(2013)은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3,834편의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의 영문 초록을 분석하였고, 유소영(2015)은 'White LED' 분야의 7,427개 문헌의 제목, 저자 키워드, WoS Keyword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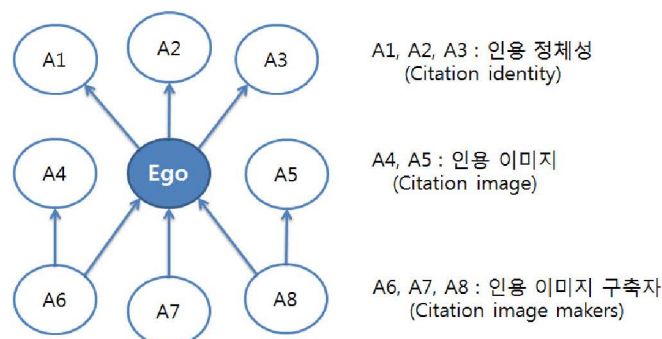
를 이용하여 동적 인용 네트워크 및 자아 중심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토픽모델링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으며, Kim, Song, & Song(2015)은 DBLP(Digital Bibliography & Library Project)로부터 수집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표된 학술회의 논문 236,170건의 제목을 대상으로 컴퓨터공학 및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프로파일링은 문헌에 출현한 단어를 단서로 해서 문헌의 디스크립터나 저자, 저널 등의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구성 단위에 따라서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김관준, 이재윤, 2007), 저자 프로파일링(김관준, 2011; 유종덕, 최은주, 2011), 저널 프로파일링(강범일, 이재윤, 2014; Lee, Kim, & Kim, 2010)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자 프로파일링은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그 연구자의 연구 주제를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전제 하에 두 연구자가 사용한 단어가 일치할수록 두 연구자의 연구 주제도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자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3 자아 중심 인용 분석

자아 중심 인용 분석은 White(2000)가 사회 네트워크 분석 분야의 자아 중심 네트워크 분석(ego-centered network analysis)에서 착안하여 연구자에 대한 계량서지적 연구 수단으로 제시한 분석 방법이다. 흔히 관련 연구자로 언급되는 공저자 정보 이외에 White는 인용 정체성(citation identity), 인용 이미지(citation image), 인용 이미지 구축자(citation image makers)의 세 가지 관련 연구자 유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연구자 자신인 ego에 의해서 인용된 저자 집합이 인용 정체성이며, 연구자를 인용한 저자 집합이 인용 이미지 구축자이고, 연구자 자신(ego)과 동시인용된 저자들이 인용 이미지에 해당한다.

자아 중심 인용분석은 저널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되었으며(Nebelong-Bonnevie & Frandsen, 2006) 국내에서도 저자(이재윤, 2012a)나 주제(이재윤, 2012b)를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저자에 대해서 분석할 때에는 저자 사이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고, 저널에 대해서 분석할 때에는 해당 저널의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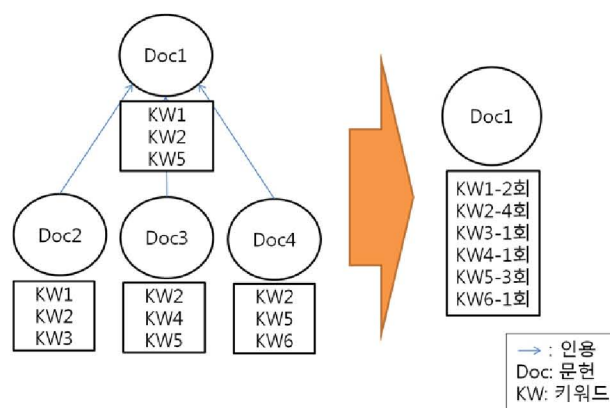
<그림 1> 인용 정체성, 인용 이미지, 인용 이미지 구축자의 개념

문에서 인용되었거나 해당 저널의 논문을 인용한 저널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주제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특정 주제어로 검색된 문헌들을 ego로 하고 이들로부터 인용된 문헌 집합을 주제 인용 정체성 집합, 이들을 인용한 문헌집합들을 주제 인용 이미지 구축자 집합으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White(2000)가 제시한 인용 이미지 구축자는 연구자 A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A의 인용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저자들이다. 즉, A에 대한 학계의 반응 결과이다. 이를 문헌 단위로 해석해보면, 문헌 D1을 인용한 문헌들은 문헌 D1에 대한 학계의 반응 결과로서 인용 이미지 구축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해당 문헌을 인용한 문헌을 통하여 형성된 해당 문헌의 이미지 구축자 집합을 이용하여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해

당 문헌의 표제어와 이를 인용한 문헌의 표제어를 추출하여 해당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CIMP)을 구축하는 기법이다. 기존에 제안된 저자 프로파일링(김관준, 이재운, 2007; 유종덕, 최은주, 2011)은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그 연구자의 연구 주제를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전제 하에 두 연구자가 사용한 단어가 일치할수록 두 연구자의 연구 주제도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자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이 저자 프로파일링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프로파일링의 분석 대상을 해당 문헌과 그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로 삼는 응용 기법이다. 특정 문헌과 이를 인용한 문헌들로부터 표제어를 추출하여 해당 문헌의 프로파일 벡터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분석은, 해당 문헌을 인용한 문헌들로부터 해당 문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분석방법이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도출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도출 개념도

〈그림 2〉에서 왼쪽의 문헌1(Doc1)이 갖는 표제어는 KW1, KW2, KW5, 문헌2가 갖는 표제어는 KW1, KW2, KW3, 문헌3이 갖는 표제어는 KW2, KW4, KW5, 문헌4가 갖는 표제어는 KW2, KW5, KW6이다. 문헌2, 문헌3, 문헌4는 문헌1을 인용한 문헌들이므로 문헌1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에 해당한다. 해당 문헌과 인용 이미지 구축자 문헌들에서 표제어를 추출하여 출현빈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헌1에 대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벡터를 구축한다. 구축된 각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한 후 다차원척도법이나 군집분석,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 등의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이다.

문헌동시인용기법은 세밀한 지적구조 파악이 가능하지만 인용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 해당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질적인 연구자 집단이 동일한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학제적인 분야에서는 유사 문헌 사이에도 인용 관계가 희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텍스트와 인용을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용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지적구조 분석 방법이다.

4.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분석

4.1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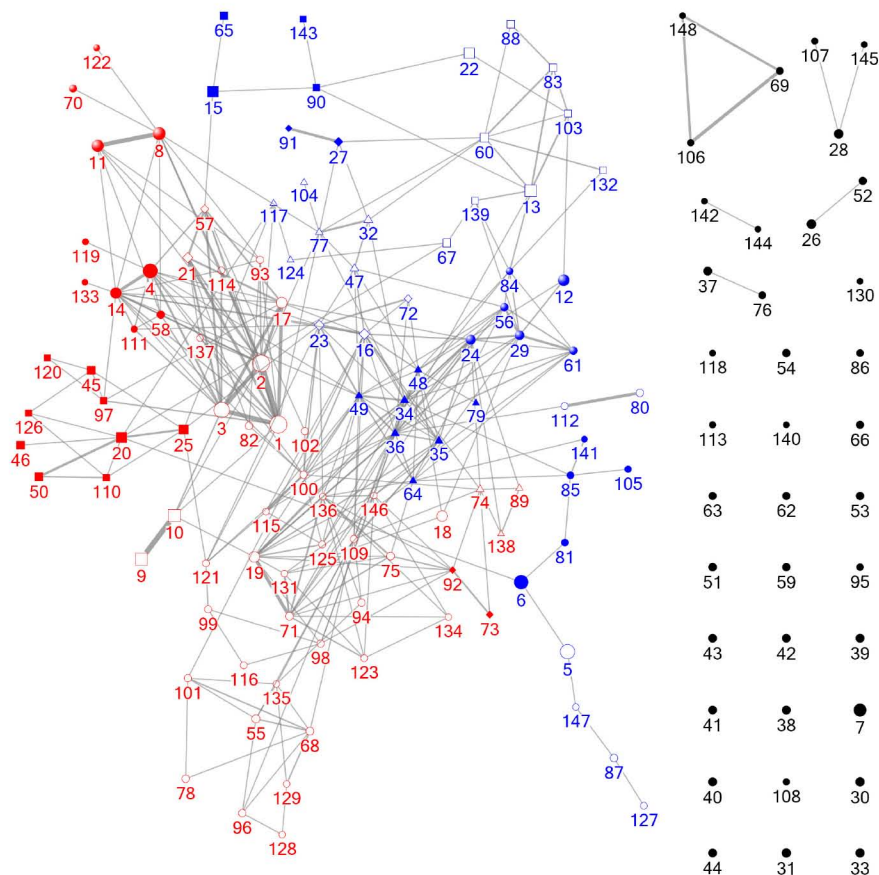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여성학 분야의 문헌 중 2013년 말까지 인용빈도 10회 이상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수집 대상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서비스인 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인용정보에서 대분류 복합학 하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학 분야의 문헌들로부터 검색하였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인용 데이터는 2013년 분까지 구축됨) 피인용횟수 10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논문 148편을 핵심 문헌으로 선정하였고 논문명과 피인용횟수, 인용한 논문명을 포함한 서지사항을 수집하였다. 논문명과 피인용횟수 데이터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 내려받았으며, 인용한 논문명은 148편의 핵심 문헌을 일일이 개별 검색하여 해당 문헌을 인용한 논문의 리스트를 추출하였다. 여성학 지적구조 분석을 위해 선정한 문헌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검색 문헌 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문헌 148건, 인용한 문헌의 수는 2,774건이다. 분석 문헌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의 피인용횟수는 80회이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기 전에 비교를 위해서 148개 문헌의 동시인용관계를 시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을 보면 148개 핵심 문헌 중 75%인 111개의 문헌이 연결된 주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나머지 25%인 37개의 문헌들은 고립되었거나 2~3개 문헌으로 구성된 소규모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다. 인용빈도 10회 이상인 문헌들 사이의 동시인용 네트워크이므로 동시인용이 발생할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 컴포넌트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이 전체의 1/4이나 되었다. 특히 7번 문헌의 경우에는 피인용 빈도 44회로 인용빈도가 전체 7위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핵심

문헌 147개 중에서 동시인용된 문헌이 없어서 네트워크에서 고립되기도 하였다. 같은 여성학을 연구하지만 연구자가 활동하는 집단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다른 여성학 연구자들과는 인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상으로 KCI로부터 인용빈도 10회 이상의 핵심 문헌을 파악하여 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한 연구(이재윤, 2015)에서는 159개 핵심 문헌 중 주 컴포넌트에 연결되지 않은 고립 문헌은 6개(3.8%)에 불과했고 153개(96.2%) 문헌이 연

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10회 이상 인용된 문헌의 수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159개, 여성학 분야가 148개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컴포넌트의 비중이 문헌정보학은 96.2%인데 비해 여성학은 75.0%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두 분야가 연구의 양적인 측면은 유사하지만 연구집단의 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독립된 연구분야 및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학 분야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학제성이 매우 높으며 분산된 연구집



〈그림 3〉 핵심 문헌 148개의 동시인용 네트워크

단으로 구성된 것이 이와 같은 차이를 낳은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동시인용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주제가 유사한 문헌이라도 동시인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33번 문헌의 경우 제목이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그림 3〉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5번 문헌인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함께 학생으로서의 여성에 관한 유사 연구로 볼 수 있지만, 두 문헌 사이에는 동시인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학 분야는 10회 이상 인용된 핵심 문헌들 사이에도 동시인용 관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문헌이 1/4이나 되고, 유사 주제 문헌 사이에도 동시인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분석 방법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여성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수집된 핵심 문헌 148건과 인용문헌 2,774건 각각의 논문명에서 KLT 형태소 분석기를 통한 자동 색인추출 방법으로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이 방법은 자동으로 색인하므로 불용어가 다수 포함되기도 하여 해당 연구에서 불용어에 해당하는 영어와 숫자, 어조사 등을 포함하는 단어를 제거하였다. 총 6,372단어의 표제어 중에서 불

용어를 제거한 후 적합한 것으로 추출한 표제어는 6,178단어이다.

먼저 148개의 각 문헌과 그 인용문헌에서 출현한 표제어를 대상으로 크기가 148 X 6,178인 문헌-표제어 행렬을 만들었다.

이렇게 추출된 표제어에 용어와 문헌간의 관계에 따른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 용어빈도-역문헌빈도(로그TFIDF) 가중치 공식을 적용하여 표제어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제어 t 가 문헌 d 에서 출현한 빈도가 tf 이고 문헌빈도는 df , 총 문헌수는 N 일 때, 로그TFIDF 공식은 다음과 같다.

$$LTF \times IDF = (1 + \ln(tf(t, d))) \times \log_2 \frac{N}{df(t)}$$

이렇게 산출한 표제어 가중치로 각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동시인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유사 주제 문헌인 5번('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과 33번('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문헌들의 제목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원 문헌의 제목 및 인용 이미지 구축자 문헌들의 제목으로부터 표제어를 추출하여 5번 문헌과 33번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을 만들면 〈표 2〉와 같고, 두 프로파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0.129로 산출된다. 5번 문헌의 입장에서 33번 문헌이 147개 타 문헌 중에서 7번째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이 유사한 문헌이며, 33번 문헌의 입장에서는 5번 문헌이 6번

〈표 1〉 5번 문헌과 33번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5번 문헌을 인용한 문헌들의 제목(일부)	33번 문헌을 인용한 문헌들의 제목(일부)
•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5번 문헌) • 가족 및 사회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건강통제위 • 간호대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비교 •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 경찰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합의: 외상후 성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고시 준비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기독교무용 수업이 여대생의 영적성숙, 건강관련체력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기질 및 성격,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증의 관계: 정신과 내원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 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차를 중심으로 • 대학 교양체육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대학 신입생 우울의 영향요인 •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P시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성과 활용 •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문제중심 대처의 조절효과	•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33번 문헌) •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경력개발지원의 관계 • 대학생 진로 의사결정 상태의 하위유형 분석 • 생태관광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유형의 군집세분화 및 행동의도의 차이 • 서울시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가정 및 학교에서의 갈등, 그리고 건강위험행동과의 관계 • 소셜 게임 이용자의 자기결정성요인, 감정반응요인 및 만족도와 의 구조적 관계 • 여대생의 심리적 욕구가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관계성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결정성이 사회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결정성이 현실감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기결정성 요인이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기결정성 요인이 온라인 게임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한 생태관광의도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진로스트레스, 회피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2〉 5번 문헌과 33번 문헌의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벡터(일부)

표제어	5번 문헌에서의 가중치	33번 문헌에서의 가중치	표제어	5번 문헌에서의 가중치	33번 문헌에서의 가중치
대학	21.10	10.51	방식	11.05	3.75
여대생	14.68	14.68	학교	10.54	4.04
진로	10.98	16.82	효능감	5.59	8.62
자아존중감	14.82	10.51	자기효능감	8.82	5.21
정신건강	12.75	8.28	간호	13.59	0.00
존중감	11.66	8.28	학업	13.42	0.00
대처	13.19	6.14	대학생	10.45	2.45
계획	6.21	10.51	자기	5.69	7.11
정신	10.12	6.14	조절효과	9.61	3.12
스트레스	9.17	5.89	건강	7.68	5.04

째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이 유사한 문헌이다. 그러나 두 문헌은 한 번도 동시인용되지 않았으므로 동시인용분석으로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여 도출된 148개 문헌 사이의 프로파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산출한 다음, 가중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WNet(이재윤, 2013)으로 병렬 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NNC)(이재윤, 2006)을 수행하고 패스파인더 네트워크(Schvaneveldt, 1990)를 생성하였다. 각 군집별로 가중치 상위 20개에 해당하는 표제어들과 핵심문헌의 논문명을 바탕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4.3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여성학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결과

알고리즘 차원에서 자동으로 군집 수를 결정해주는 PNNC 기법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국내 여성학 분야는 군집화 단계에 따라 크게는 두 개의 대군집으로 나뉘고, 다시 중간크기의

군집 6개, 작은 크기의 군집 35개로 세분되었다. <표 3>과 같이 중간 단계인 6군집으로 구분된 각 군집별 주요 표제어와 군집에 속한 핵심문헌의 논문명을 바탕으로 <표 4>와 같은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PNNC 기법의 결과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도출 결과와 함께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국내여성학 분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집의 크기에 따른 분류와 각 군집명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A와 B 두 개의 대군집과 중간크기의 여섯 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학 분야의 세부적인 주제 구조를 파악하는데에 용이한 중간크기의 6개 군집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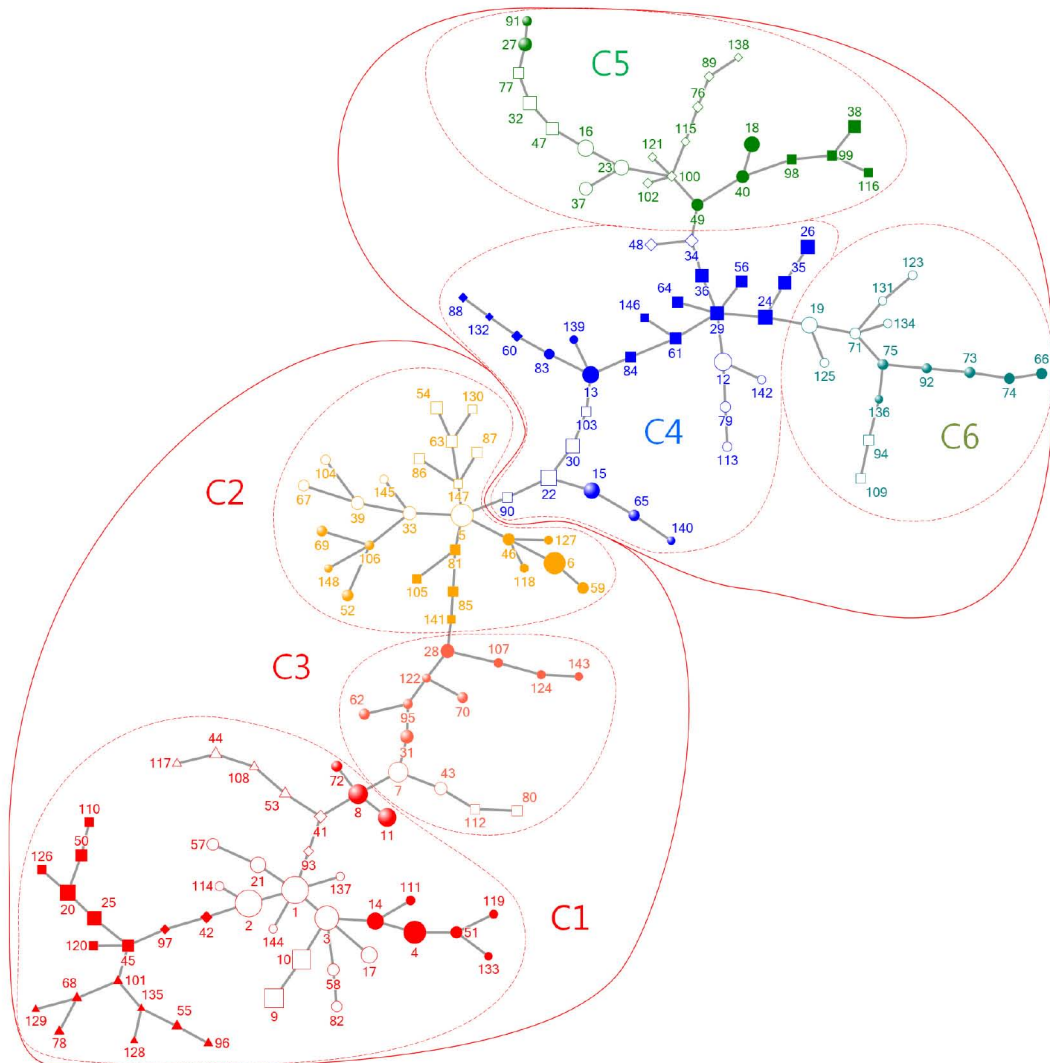
제 1군집의 군집명은 '이주민으로서의 여성, 식민지 여성'이며 45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이며 주로 국제결혼여성이나 새터민 등 결혼을 통해 이주하게 된 여성에 관한 연구이다.

<표 3> 6개 군집의 주요 표제어 단어가중치 (일부)

순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군집 6	
	단어	가중치	단어	가중치	단어	가중치	단어	가중치	단어	가중치	단어	가중치
1	이민	4.48	진로	6.16	아동	7.56	직장	4.83	자유주의	4.74	여성주의	4.24
2	이주	4.28	대학	4.76	예측	7.54	일가족	4.50	신자유주의	4.66	국가	4.00
3	다문화	4.28	동기	4.06	양육	6.77	직무	4.35	출산	3.23	사업	3.80
4	결혼이주여성	4.16	대학생	3.88	양육스트레스	6.21	양립	4.30	노동	3.04	정책	3.59
5	여성결혼이민자의	3.88	학업	3.81	유아	5.22	조직	4.00	빈곤	2.86	젠더	3.20
6	다문화가정	3.77	학생	3.38	어머니	5.10	취업	3.91	경제	2.73	주류	2.97
7	결혼	3.63	고등	3.17	불안	4.79	주부	3.53	시장	2.70	운동	2.80
8	다문화가족	3.62	성폭력	2.98	부모	4.45	기혼	3.37	모성	2.55	기술	2.70
9	국제	3.44	학습	2.94	행동	4.18	시간	3.15	담론	2.50	주류화	2.69
10	거주	3.31	자아존중감	2.85	스트레스	3.90	노인	2.96	세대	2.48	가능성	2.61

〈표 4〉 국내 여성학 분야 연구 세부군집

대군집	중군집
A: 가정에서의 여성	1: 이주민으로서의 여성, 식민지 여성
	2: 학생으로서의 여성
	3: 어머니로서의 여성
B: 사회에서의 여성	4: 직장 (기혼)여성, 중/노년 여성
	5: 여성과 사회문제(노동, 빈곤, 저출산)
	6: 여성주의 이론과 정책



〈그림 4〉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에 의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와 PNNC 군집

제 2군집의 군집명은 '학생으로서의 여성'이며 25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관광활동,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well-being)의 관계'로 주로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여학생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제 3군집의 군집명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며 13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고 양육스트레스나 학생과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연구가 해당 군집을 이룬다.

위의 군집 1, 2, 3의 경우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역할(아내, 어머니, 학생-자녀)과 관련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군집 A의 주제를 '가정에서의 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4군집의 군집명은 '직장 (기혼)여성, 중/노년 여성'이며 29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 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이며 기혼여성의 심리상태나 직장여성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제 5군집의 군집명은 '여성과 사회문제(노동, 빈곤, 저출산)'이며 22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이다. 해당 군집의 세부연구주제는 신자유주의, 장애인 여성관련 문제로 본다.

제 6군집의 군집명은 '여성주의 이론 및 정책'이며 14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문헌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이다. 이 군집의 경우에는 페미니즘 등 여성주의 이

론과 성매매 등 여성 정책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위의 군집 4, 5, 6의 경우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관련 문제(직장여성, 사회문제, 여성정책)의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군집 B의 주제를 '사회에서의 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이명옥(1996)의 저자동시인용분석에서 파악되었던 주요 연구주제는 가족, 여성복지, 여성사, 가사노동, 여성노동, 고용차별, 여성교육, 여성과 성, 여성과 법, 가정폭력, 여성일반 등이었다. 이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행 연구에서 '가족'으로 폭넓게 규정되었던 연구 주제가 '학생으로서의 여성'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으로 구체화/세분화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활성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대군집 A에 해당하는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 경향이 크게 변화한 것이 비해서 대군집 B에 해당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큰 변화가 없었다. 선행 연구의 여성복지, 여성사, 가사노동, 여성노동, 고용차별 등의 주제는 본 연구에서도 직장여성에 대한 제 4군집과 노동과 빈곤 등을 다룬 제 5군집에서 여전히 다루고 있다. 제 4군집에 포함된 '저출산'과 같은 일부 연구 주제가 새롭게 대두되긴 했으나 전반적인 연구 영역의 구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5. 여성학 문헌에 대한 분야별 인용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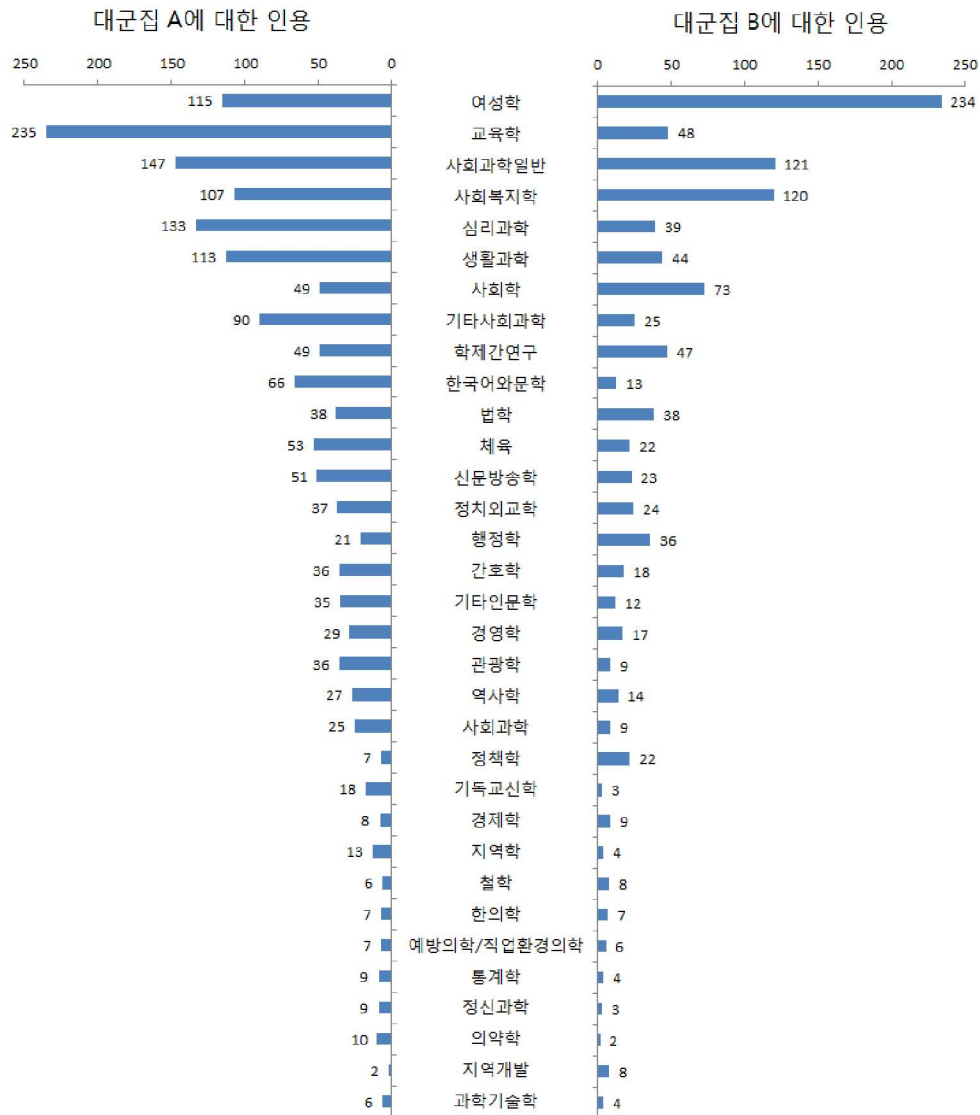
학제성이 강한 여성학의 각 군집을 대상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은 인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표 5>는 타 분야에서 여성학 분야 핵심문헌 148건에 대한 인용이 이루어진 학술지가 속해있는 학문분야를 확인하여 그 수를 파악한 일부의 내용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2,774건의 문헌 중 여성학 349회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83회로 교육학이

많았다. 이후로는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심리과학 순이다. 여성학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는 분야는 교육학과 여성학 분야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타 분야에서 여성학을 인용한 문헌 수가 10건에 해당하는 학문분야까지 포함하였다.

<표 5> 6개 군집별 인용된 분야 및 인용빈도

순위	구분	A			B			합계	비율 (%)
		1	2	3	4	5	6		
1	여성학	79	24	12	72	95	67	349	12.6
2	교육학	102	79	54	24	17	7	283	10.2
3	사회과학일반	80	45	22	76	36	9	268	9.7
4	사회복지학	66	17	24	73	42	5	227	8.2
5	심리과학	54	49	30	32	7	0	172	6.2
6	생활과학	76	10	27	28	16	0	157	5.7
7	사회학	46	2	1	15	33	25	122	4.4
8	기타사회과학	40	38	12	20	4	1	115	4.1
9	학제간연구	36	10	3	26	18	3	96	3.5
10	한국어외문학	66	0	0	0	7	6	79	2.8
11	법학	9	29	0	1	28	9	76	2.7
12	체육	23	29	1	19	2	1	75	2.7
13	신문방송학	43	8	0	8	11	4	74	2.7
14	정치외교학	35	2	0	7	7	10	61	2.2
15	행정학	14	7	0	19	7	10	57	2.1
16	간호학	15	11	10	17	1	0	54	1.9
17	기타인문학	35	0	0	0	8	4	47	1.7
18	경영학	10	19	0	15	1	1	46	1.7
19	관광학	20	15	1	9	0	0	45	1.6
20	역사학	26	1	0	1	5	8	41	1.5
21	사회과학	18	5	2	6	3	0	34	1.2
22	정책학	7	0	0	7	8	7	29	1.0
23	기독교신학	11	2	5	2	1	0	21	0.8
24	경제학	6	0	2	5	2	2	17	0.6
24	지역학	13	0	0	1	2	1	17	0.6
26	철학	6	0	0	0	1	7	14	0.5
26	한의학	1	2	4	7	0	0	14	0.5
2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6	1	0	4	2	0	13	0.5
28	통계학	8	1	0	3	1	0	13	0.5
30	의약학	5	2	3	2	0	0	12	0.4
30	정신과학	5	2	2	1	2	0	12	0.4
32	과학기술학	1	4	1	1	1	2	10	0.4
32	지역개발	2	0	0	4	2	2	10	0.4



〈그림 5〉 여성학에 대한 타 분야에서의 인용

대군집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A군집의 가장 많은 인용은 교육학, 사회과학일반, 심리과학 순이다. 대군집 A에 속한 제 1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교육학, 여성학, 사회과학, 생활과학 일반, 한국어와 문학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제 2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교

육학, 심리과학, 사회과학일반, 기타사회과학, 법학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제 3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교육학, 심리과학, 생활과학, 사회복지학, 사회과학일반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1, 2, 3 군집의 경우 교육학, 심리과학 등 비교적 개인

을 단위로 하는 연구 분야에서의 인용이 이루어졌다. 가정이라는 환경에 제한된 연구들이 A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군집 B는 여성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사회학 순으로 타분야에서 인용되었다. 제 4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과학, 생활과학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제 5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여성학, 사회복지학, 사회과학일반, 사회학, 법학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제 6군집의 인용을 살펴보면 여성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과학일반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4, 5, 6군집의 경우 여성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비교적 학제적 학문이나 여성 문제를 정책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학문분야에서의 인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사회에서의 여성이라는 B군집의 군집명에 부합하는 인용 형태가 나타난다.

인용하는 타 학문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의 여성학 연구는 교육학 및 심리과학 분야로부터 주로 인용되는 대군집 A 영역과, 여성학 자체 및 사회학 분야로부터 주로 인용되는 대군집 B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사회복지학은 여성주의 이론 및 정책에 대한 제 6군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학 연구분야를 고르게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옥(1996)의 연구에서 여성연구분야에 공헌한 사회과학분야로 나타난 전공분야는 1980년대는 사회학(12명), 사회복지(4명), 법학(4명), 교육(4명) 순이었고, 1990년대에는 사회학(10명), 법학(6명), 여성학(5명), 사회복지(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학이 여성연구분야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에는 법학과 여성학 전공자의 연구활동이 두드러짐으로써 1990년대에는 여성에 관한 가족법, 노동법 등 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조주현(2000)의 연구에서 『한국여성학』에 투고한 저자의 소속 분야는 여성학(25명, 27.2%), 사회학(20명, 21.7%), 인류학(9명, 9.8%), 철학(8명, 8.7%), 영문학(4명, 4.3%), 교육(4명, 4.3%)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들 6개 전공이 주요 분과들이며 그중에서도 여성학과 사회학 전공자가 48.9%로 절반에 가까운 연구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 비중 하락이 두드러진 분야는 사회학 분야이다. 이명옥(1996)의 연구에서는 1위로, 조주현(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학을 제외한 분야 중 1위로 공헌도가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4.4%의 비중으로 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명옥(1996)의 연구에서 주요 공헌 분야였던 법학 분야가 본 연구에서는 11위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조주현(2000)의 연구에서 8.7%를 차지한 주요 분야로 나타났던 철학 분야가 본 연구에서는 0.5%로 26위에 불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선행 연구에서 5위권에 머물렀던 교육학의 비중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학 다음으로 가장 높은 10.7%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의 비중은 이명옥(199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유사하게 5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0년 이전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사회학, 철학 및 법학의 비중 하락과 교육학 분야의 대두가 가장 두드러진 변

화로 파악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계량적 지적구조 분석 기법으로 인용문헌의 표제어를 추출하여 학문 분야의 지적구조를 파악 가능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지적 구조 분석 기법 중 문헌을 분석 단위로 하여 세밀한 분석으로 학문분야의 지적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문헌동시인용 기법과 대비하여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제성이 강한 국내 여성학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해보았다. 더하여 국내 여성학 분야의 연구전선을 형성한 핵심 문헌과 주제를 파악하고 타 분야에서의 인용을 통한 여성학 분야의 학제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국내 여성학 분야의 연구전선을 형성하는 주제를 크게는 '가정에서의 여성'과 '사회에서의 여성'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연구주제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가정에서의 여성' 주제영역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여성, 식민지 여성', '학생으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영역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에서의 여성' 주제영역에는 '직장 (기혼)여성, 중/노년 여성', '여성과 사회문제(노동, 빈곤, 저출산)', '여성주의 정책'의 중간크기의 영역이 포함된다.

각 군집의 핵심 문헌은 1군집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2

군집의 '관광활동,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well-being)의 관계', 3군집의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4군집의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5군집의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6군집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가 파악되어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 벡터에서 파악된 주요 표제어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1980~1990년대를 다루었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이 연구에서 드러난 대군집 A에 해당하는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학생', '어머니', '이주여성'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진화한 반면에, 대군집 B에 해당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 경향은 여성노동과 여성사 및 여성복지 위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군집을 대상으로 타분야에서의 인용빈도순으로 나열했을 때 A군집은 교육학, 사회과학일반, 심리과학순서로 나타났고, B군집은 여성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사회학 순서여서 여성학에 대한 학제적인 접근이 교육/심리와 사회/사회복지 분야로 크게 나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1980~1990년대의 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학, 철학 및 법학의 비중 하락과 교육학 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주제의 변화와 인용한 타 학문분야의 변화를 교차해서 검토해보면, 대군집 A의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서 '학생', '어머니',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발전한 것은, 인용이 증가한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기여가 최근 여성학 연구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해당 문헌을 인용한 문헌들을 통해서 해당 문헌의 프로파일링을 구축하고 이를 비교하여 문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제안되었다. 분석 결과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동시인용이 발생하지 않는 문헌 사이의 주제적 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고, 학제적 분야에서의 지적구조 군집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학제적 학문 분야에는 문헌동시인용을 이용하여 지적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위와 같은 강점을 갖기에 학제적 연구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에 따라 학제적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주제 영역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및 지적구조 분석 기법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범일, 이재운 (2014). 트위터 관련 연구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3), 293-311.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293>
- 김영진 (1986). 논문의 동시인용을 통한 지적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103-135.
- 김판준 (2011).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44.
- 김판준 (2015).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069>
- 김판준, 이재운 (2007). 연구 영역 분석을 위한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285-303. <http://dx.doi.org/10.3743/kosim.2007.24.4.285>
- 김희전, 조현양 (2010).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지적 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3), 283-306.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3.283>
- 민형진, 안준모 (2015). 국내 IT아웃소싱분야 연구 동향 분석: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29(4), 29-53.
-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1), 1-45.
- 송민선, 고영만 (2015). 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거시적 지식구조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21-236.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221>
- 유소영 (2015). 자아 중심 네트워크 분석과 동적 인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반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1), 153-169.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153>
- 유종덕, 최은주 (2011). 저자프로파일링분석과 저자동시인용분석의 유용성 비교 검증. *정보관리학회지*, 28(1), 123-144.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1.123>
- 유지영, 우수한 (2015). 저자서지결합분석을 이용한 국내 물류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25(3), 13-24.
- 이나영 (2011).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27(4), 37-81.
- 이명옥 (1996).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이용한 여성연구의 특성 및 동향. *한국여성학*, 12(1), 180-203.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049>
- 이재운 (2006).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http://dx.doi.org/10.3743/kosim.2006.23.4.215>
- 이재운 (2008). 서지적 저자결합분석: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보관리학회지*, 25(1), 173-190.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1.173>
- 이재운 (2012a). 자기 인용 네트워크와 인용 정체성을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 이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157-174.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1.157>
- 이재운 (2012b). 폭소노미 연구 문헌에 대한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9(4), 295-3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295>
- 이재운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이재운 (2015).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 전선 파악. *정보관리학회지*, 32(4), 77-106.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077>
- 조주현 (2000).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 16(2), 145-174.
- 허고은, 송민 (2013).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의료정보학 저널의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07-225.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207>
- Kim, Hyun-Jung (2014). The JASIST editorial board members' research areas and keywords of JASIST research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27-247.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227>
- Kim, Su-Yeon, Song, Sung-Jeon, & Song, Min (2015). Investigation of topic trends in computer

- and information science by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135-152.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135>
- Lee, J. Y., Kim, H., & Kim, P. J. (2010). Domain analysis with text mining: Analysis of digital library research trends using profiling method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6(2), 144-161. <http://dx.doi.org/10.1177/0165551509353251>
- Nebelong-Bonnevie, E., & Frandsen, T. F. (2006). Journal citation identity and journal citation image: A portrait of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62(1), 30-57. <http://dx.doi.org/10.1108/00220410610642039>
- Schvaneveldt, R. W. (1990). *Pathfinder associative networks: Studies in knowledge organization*. New York: Ablex Publishing.
- Seo, E. G., & Yu, S. Y. (2013). Detecting research trends in Korean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0-201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15-23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15>
- Small, H. G.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http://dx.doi.org/10.1002/asi.4630240406>
- White, H. D. (2000). Toward ego-centered citation analysis. In B. Cronin & H. B. Atkins (Eds.), *The web of knowledge: A festschrift in honor of Eugene Garfield* (pp. 475-496). Medford, New Jersey: Information Today, Inc.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 Bae, Eun-Kyung (2016). Gender policy paradigm and 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the 'Gender Perspective': Theoretical review of the history of polic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2(1), 1-45.
- Cho, Joo-hyun (2000). Knowledge production structure and prospects of Korean women's studies: The case of Han'guk Yeoseonghak.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6(2), 145-174.
- Heo, Go-Eun, & Song, Min (2013).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medical informatics journal with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07-225.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207>
- Kang, Beom-Il, & Lee, Jae-Yun (2014). A bibliometric analysis on Twitter research. *Journal*

-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93-311.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293>
- Kim, Hee-Jeon, & Cho, Hyun-Yang (2010).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3), 283-306.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3.283>
- Kim, Pan-Jun (2011). Domai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44.
-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069>
- Kim, Pan-Jun, & Lee, Jae-Yun (2007). Descriptor profiling for research domai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4), 285-303.
<http://dx.doi.org/10.3743/kosim.2007.24.4.285>
- Kim, Young-Jin (1986).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 103-135.
- Lee, Jae-Yun (2006).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http://dx.doi.org/10.3743/kosim.2006.23.4.215>
- Lee, Jae-Yun (2008). Bibliographic author coupling analysis: A new methodolog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research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1), 173-190.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1.173>
- Lee, Jae-Yun (2012a). Exploring a researcher's personal research history through self-citation network and citation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157-174.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1.157>
- Lee, Jae Yun (2012b). Ego-centered topic citation analysis on folksonomy research docum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295-3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295>
- Lee, Jae-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Jae-Yun (2015). Identifying the research front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32(4), 77-106.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077>
- Lee, Myoung-Ok (1996). Major themes and trends in Korean women's studies: The results of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2(1), 180-203.
- Lee, Na-Young (2011). The positionality of women's studies: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and changes in opportunity structur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7(4), 37-81.
- Lee, Soo-Sang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049>
- Min, Hyoung-Jin, & An, Joon-Mo (2015). A study of IT outsourcing research trends in Korea: Utilizing author-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Productivity Review*, 29(4), 29-53.
- Park, Ja-Hyun, & Song, Min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Park, Ji-Yeon, & Jeong, Dong-Youl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 Ryoo, Jong-duk, & Choi, Eun-Ju (2011). A comparison test on the potential utility between author profiling analysis (APA) and author co-citation analysis (AC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123-144.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1.123>
- Song, Min-Sun, & Ko, Young-Man (2015). A study on the macro analysis of knowledge structure of the domestic Korean studies for identifying the research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21-236.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221>
- Yoo, Ji-Young, & Woo, Su-Han (2015). Analysis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logistics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Korea Logistics Review*, 25(3), 13-24.
- Yu, So-Young (2015). Combining ego-centric network analysis and dynamic citation network analysis to topic modeling for characterizing research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153-169.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153>

[부록] 여성학 분야 핵심 논문 148건의 제목(PNNC 군집순 정렬)

2군집	6군집	번호	논문명
A	1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3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1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21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57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58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성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여성주의적 고찰
		82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14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137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144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14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51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111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119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133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8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11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72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9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10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20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25	외모차별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45	몸권력과 젠더: 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낯선한 몸' 관리
		50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110	객체화 신체이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중국·일본 여대생 비교
		120	유방암, 손상된 몸과 여성성의 위기감
		12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美)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4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93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가지는 효과
		42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97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4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53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108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이론
		117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55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2군집	6군집	번호	논문명
A	1	68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78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여급 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9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101	1930년대 '신식' 화장담론이 구성한 소비주체로서 신여성: 여성잡지 『신여성』, 『신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128	식민지에 온 제국의 여성: 재조선 일본여성 쓰다 세츠코를 통해서 본 식민주의와 젠더
		129	소비하는 여성들: 1920-30년대 경성과 욕망의 경제학
		135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2	5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33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39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6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104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145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성숙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차이 연구
		6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4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59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118	과학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현황과 해결 방안
		127	중·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
		52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69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간 선호도 차이
		106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148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
		54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63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86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자기존중적 성행동
		8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130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147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81	셀프리더십의 성별차이 및 대학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85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105	확산적 사고력과 창의적 인성에서의 성차
		141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3	7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3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28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107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2군집	6군집	번호	논문명
A	3	124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143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31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6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70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95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발달을 중심으로
		122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80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112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B	4	12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79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탈진 및 가정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차에 따른 다집단 분석
		11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목표불안정성과 문제해결양식의 역할
		142	장애평가와 비장애평가의 직무실태와 만족에 관한 연구: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3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83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139	여성정신건강과 여성주의 치료의 방향
		15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65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140	화병환자의 MMPI-2 프로파일 특성
		2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30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90	중년기 여성의 주부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03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분석
		24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달론적 지형과 변화
		26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2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35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36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생활 변화와 한계: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56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61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에 미치는 영향: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64	공직의 유리천장: 여성공무원의 승진저해기제 및 제도의 이면효과
		84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46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3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48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과 딜레마: 강한 직업정체성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6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88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132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2군집	6군집	번호	논문명
B	5	16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2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37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18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중단적 연구
		40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성의 변화
		49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 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화'
		27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91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32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47	유럽의 저출산 관련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77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38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98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99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116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76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89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10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10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115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21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138	1970년대 '이조여인'의 탄생: '조국근대화'와 '민족주체성'의 타자들
	6	19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71	성주류화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123	정책과정을 통해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공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125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131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134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66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74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73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이론
		75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합정인가?
		92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136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94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109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여성주의 문화기술지(feminist ethnography)의 정립을 향하여